

중 국

‘揚子江(長江) 전략’ 과 上海 ‘浦東新區’ 의 역할

중국발전전략의 새로운 방향

지난 '78년 등소평의 복권과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개혁과 보수파의 속도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이킬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80~'90)의 공산품 수출순위를 보면 중국은 20위권 밖에서 14위로 급부상하여 10위 대만, 11위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은 王建的 '國際大循環論'에 입각한 '沿海經濟發展戰略'에 기인하고 있다. 1988년 3월 黨 13期 2中全會에서 趙紫陽에 의해 채택된 발전전략은 연안지역의 과잉노동력을 이용하여 鄉鎮企業을 주축으로 노동집약형 제품을 대량 수출함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즉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국제대순환에 편입시켜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해결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전환 메카니즘을 통해 자금과 기술을 획득하여 농업과 공업과의 순환관계를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같은 沿海발전전략은 경제특구(5개), 델타지역(珠江, 長江, 閩南), 개방구(山東, 遼東), 14개 연안도시의 개방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결과는 관련 지역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上海와 이른바 '6마리의 작은 龍'인 珠江델타지역(中山, 佛山, 江門), 長江델타지역(蘇州, 無錫, 常州), 山東반도, 厦門지역(福建省 남동부), 遼東

반도, 海南省을 '90년대 중국발전의 주력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은 연안과 내륙,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과 이중구조 및 자원집중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많은 체제내적인 갈등이 야기되었고 새로운 발전전략의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10대 지역경제권 발전전략'과 '4沿 개방전략'의 대두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10대지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제8기 全人大에서 결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지역별, 업종 특화를 통한 개방지역의 전국화였다. 즉 외국투자를 연해에서 내륙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연해 지역은 보다 고부가가치 고도기술형산업, 제3차 산업의 육성쪽으로 유도하고, 내륙지역은 현지 원자재를 활용한 개발형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었다.

'4沿 開放戰略'은 전방위개방을 통해 지금까지 연안항구도시에 집중된 외국인 투자를 내륙 및 변경까지 끌어들이어 외자 및 기술의 충격효과를 내부까지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沿邊 전략은 동북변경(黑龍江, 內蒙古, 吉林, 遼寧), 서부변경(新疆), 남부변경(雲南, 廣西) 등 국경지대에 변경무역에 적합한 경공업형 산업단지를 육성하며, '沿線전략'은 連雲港-蘭州-우루무치에 이르는 중국의 동서내륙횡단철로(TCR:Trans China Railway) 주변에 농산물 가공, 경공업, 자원개발업종을 유치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沿江전략'은 揚子江 상하류의 28개 도시(重慶, 武漢, 寧波, 杭州 등)를 개방, 자원

## 중 국

개발산업, 수출가공산업, 하이테크산업의 육성이 목표이다.

### ‘揚子江(長江) 전략’의 龍頭 上海 ‘浦東 新區’

‘揚子江(長江) 전략’은 ‘10대지역경제권 발전전략’과 ‘4강 개방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10대지역경제권 발전전략’ 중에서 양자강 델타, 양자강 중류, 양자강 상류 등 3개 지역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4강 개방전략’ 중 ‘沿江전략’이 이에 해당된다. ‘양자강 전략’의 구상은 양자강 연안의 28개도시, 8개 지구를 한데 묶은 ‘양자강 경제권’형성을 위해 2000년까지 국내자본 1조 元과 1백억 달러의 외자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上海의 浦東에서부터 四川省 重慶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上海는 ‘양자강 전략’의 핵심적인 지위를 점한다. 그것은 첫째, 양자강의 ‘용머리’(龍頭)에 해당하는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10대 지역경제권의 특화전략에 따라 上海를 중심으로한 양자강 델타지역은 고도정밀산업(전자 반도체), 금융,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高新技術) 분야를 집중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업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인 ‘大進進出’(원재료의 대량수입, 제품의 대량수출) ‘兩頭在外’(원료와 시장을 해외에 의존함)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4월, 중국 정부는 양자강의 용머리에 氣를 불어 넣는 上海 浦東지역의 개발과 개

방을 정식으로 선언하였다. 上海는 黃浦江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존의 서쪽지역은 더이상 개발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개발지역이 필요했다. 따라서 아직 개발이 덜 되었던 黃浦江의 동쪽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곳은 ‘浦東新區’(Pudong New Area)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포동신구는 520평방km의 면적과 150만명의 인구를 지닌 곳으로 중국 최고의 인프라 구축, 대형 비즈니스센터 건립, 포괄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설정 그리고 주민생활질의 향상 등을 통한 수출지향적이고 다기능적인 현대도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포동신구의 발전전략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사회·경제의 진보에 일차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전전략의 우선순위는 재정과 무역을 포함한 3차산업의 육성, 도시 하부구조의 건설, 첨단신기술산업의 배양, 그리고 상해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 등이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250억 元이 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楊浦대교, 南浦대교, 浦東環狀 고속도로, 外高橋 신항구, 50만회선의 전화, 수도 및 전력시설 등이 확보될 수 있었다. 포동지역의 GDP는 1990년 60억 元에서 1994년 290억 1천만 元으로 연평균 23.4%의 성장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상해 전체 성장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외국 무역액은 16억 9천 2백만 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 생산 원자재시장, 소비자 유통시장, 부동산시장, 기술시장 및 인력시장을 구축하여 포동신구의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 중 국

록 하였다. 특히 개발재원에 필수적인 국내의 금융기관은 현재 360개를 유치하였다. 이들 금융기관의 저축 및 대출액수는 900억 원으로 상해시 전체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浦東新區’의 기술개발전략

최근 중국은 막대한 잠재시장을 매개로 기술 선진국들과의 공동투자에 의한 공장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즉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선진첨단기술들을 소화·흡수하려는 이른바 ‘기술우물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포동신구는 이와같은 전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이다. '95년 9월 현재 포동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기업은 3,236개, 투자액은 132억 달러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259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은 60여 개에 79건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외자기업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20%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첨단신기술산업들을 핵심지역에 가능별로 집중시킴으로써 지주산업(pillar industries)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동신구내의 4개의 핵심지역(key zones)이 집중 개발되고 있는데 이곳의 하부구조구축에만 60억 원이 투입되었다. 陸家嘴 금융무역구(Lujiazui Finance & Trade Zone)은 금융, 무역과 비즈니스, 물류유통, 정보의 4개 센터를 중심으로한 금융무역 관련 국내의 기관들이 집결해 있다. 金橋出口加工區(Jinqiao

Export Processing Zone)에서는 273건의 프로젝트(평균 1300만 달러)가 진행 중이며 '95년 말 공업매출액은 10억 원으로 예상된다. 外高橋保稅區(Waigaoqiao Free Trade Zone)는 보세창고, 국제무역, 수출가공,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억 8천만 원 규모의 1933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張江高科技園(Zhangjiang Hi-tech Park)은 17평방km의 면적에 연구기능, 생산기능,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생물공학 및 제약, 인공지능, 광학, 레이저, 에너지, 신소재, 정밀기계, 항공우주, 정밀화학 등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집중 육성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2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Biological Pharmaceutical Valley'와 'Computer Software Town'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셋째, 건설·통신·교통·금융·무역·산업·운영관리의 현대화와 같은 과학기술의 응용 및 산업적 적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浦東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구시가지에 있는 黃浦江 다리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현수교에 필요한 강철 케이블이었다. 과중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은 일본, 독일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해 과학기술위원회는 1989년, 케이블 제조기술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정하고 연구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였다. 상해 전자케이블연구소, 상해 설계연구소, 상해 제일건설공사 등으로 「상해 Pujiang 강철케이블공사」를 설립한 것이다. 3년여의 노력 끝에 세계 첨단수준의 연구결과를 얻었다. 현재 연간 6,000t 이상의 케이블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 중 국

수출까지 하고 있다.

넷째, 기업 및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전통산업에 첨단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술개신(technical revation)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을 통해 포동신구를 국제적 수준의 R&D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적 결과를 산업화하는 종합적인 실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上海 高新技術產業開發區의 새로운 시도: '一區多園' 형식

통신과 생물공학, 신형 가전제품, 자동차 등 기술밀집형 산업을 주로 하는 上海 浦東金橋出口加工區는 최근 상해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가입할 것을 제출하였다. 상해 고신기술개발구는 이미 漕河涇新虹경제개발구, 張江高科技園, 上海大學科學園과 중국방직국제과기산업성을 가지고 있다.

상해고신기술개발구는 1991년 국무원이 국가급고신기술개발구로 비준하고, 우선 먼저 漕河涇新虹기술개발구로부터 시작하였다. 상해고신기술개발구의 발전을 위해 국가科技委에서는 이후에 浦東 張江高科技園, 상해대학과학원, 青浦중국방직城을 상해고신기술개발구에 포함하여 비준하였다. 浦東新區의 金橋出口加工區는 작년엔 50억 원의 생산액을 달성하고, 그 중에 첨단신기술산업이 37억 원을 올렸다. 올해는 120억 원의 생산액 달성과 80억 원의 첨단신기술산업 생산액을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嘉定

民營科技密集區, 松江莘莘科技園, 閔行南洋高新工業園등 일부 民營科技園이 구축되어 상해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대한 가입을 요창하고 있다.

'一區多園'의 새로운 형식은 상해 전체의 첨단신기술산업이 활기있게 발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첨단신기술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해 '火炬計劃'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원래의 21가지 항목에서 66가지로 증가되었고, 총투자도 3,272만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1994년 상해 화거계획은 84가지 항목에, 총 투자액은 6.7억 원이며 생산액과 이윤세금이 지난의 5년동안의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컴퓨터응용, 생물공학과 의약의 두 가지 산업은 市政府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4년 85억 원의 총생산액을 달성하였다. 초기에 성립된 漕河涇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생산, 판매와 서비스가 일체화 된 종합적인 고신기술산업기지로 되었고, 연공업생산액이 69억 원이다. 상해시 科技委가 인정한 區내의 고신기술기업은 352개에 총생산액은 357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향후 포동신구의 고신기술산업개발구가 본격적인 제케도에 오른다면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양자강 전략'의 龍頭로서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洪 性 範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